

교수피드백을 적용한 성찰일지 작성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융합 연구

김진영, 김은정*
서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Writing Reflection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o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in-Young Kim, Eun-Jung Kim*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eoy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이 학습동기, 학습태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8년-2019학년도 건강사정 및 실습수업을 이수한 간호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학습태도는 사전점수를 공변량 처리하여 공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습동기($t=2.10$, $p=.037$), 학습태도($t= 4.54$, $p=.034$)에서 시행군과 대조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교과목에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을 적용한다면 학습동기, 학습태도 향상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교수피드백, 성찰일지, 학습동기, 학습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pplication of reflective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For this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data from 190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health assessment skills course from 2018 to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Ancova. After writing reflection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learning motivation($t=2.10$, $p=.037$) and learning attitude ($t= 4.54$, $p=.034$) compared to writing reflection journal without teaching feedback.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reflection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and reflection journal without teaching feedback. These results suggest writing reflection with teaching feedback is an effective strategy for improving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attitude.

Key Words : Teaching Feedback, Reflection Journal,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Attitude, Academic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Eun Jung Kim(kejshep@seoyeong.ac.kr)

Received October 4,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21,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부각과 자기주도학습의 향상을 목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방법 중 성찰활동이 실제 수업 및 평가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그 효과가 다양하게 입증되고 있다[1]. 성찰(reflection)은 학습자가 지식을 재구성하는 고차원적인 사고활동으로,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 적용할 때 학습자 본인이 사고하는 지적이고 감정적인 활동을 말한다[2]. 이러한 활동은 Kolb의 경험학습모형의 학습사이클(learning cycle)을 통해서 학습과정으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3]. 학습사이클은 추상적 개념화, 구체적 경험, 능동적 실험, 성찰적 관찰인 4가지 학습형태로 구성되며 학습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지각, 처리할 때 이 4가지 학습형태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며 학습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학습자가 구체적인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이 학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찰이 필요하므로 성찰은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4].

이러한 성찰활동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는 멘토링, 소그룹 활동, 포트폴리오, 성찰일지가 있으며[5] 이중 성찰일지는 학습자가 성찰을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교수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는 일지를 가리킨다[6]. Moon[7]은 성찰일지가 학습의 기록이며 학습자가 성찰 과정을 통해 이루어낸 학습내용의 총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성찰활동이 되기 위해서 즉, 학습자의 성찰일지 작성이 유의미한 교육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찰일지 작성이 학생 일인칭 입장에서 시행하는 성찰활동이지만 교수자가 성찰과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성찰일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성찰을 유도하면 학생들의 성찰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교수자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8]. 학습과 관련한 피드백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자에게 일정한 학습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그 결과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9]. 피드백은 교수-학습이론에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필수적 요소로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10]. 이러한 피드백을 교수자가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학생의 학습동기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자 개인이 갖는 학습동기는 학습행동뿐만 아니라 학습의 능력과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11]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된 변화의 경험을 통해 얻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반응이기에 학습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12]. 또한 학습태도는 한번 형성되면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지속성을 가지기에 학습태도가 형성되는 초기인 저학년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13]. 그리고 간호대학생은 현재의 학습상황에서 주어진 학습과제를 현재보다 향상시키고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므로 학업적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의 기대나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다[14].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습을 잘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15] 성찰이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나[16]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를 적용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공계 학생의 글쓰기 교과목에서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되어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17]. 또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실습 교과목에서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의 피드백이 이루어졌을 때 학습동기가 향상되고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18].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된 학습자의 성찰일지 작성은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드백과 관련된 성찰일지 연구는 주로 공학이나 교육학에서 수행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피드백을 적용한 성찰일지 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간호학에서는 성찰일지를 문제중심학습[19], 블렌디드 러닝[20], 팀 기반학습[21]과 같은 교수학습방법에 연결시켜 효과를 규명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는 교수학습방법 효과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찰일지 효과에 대한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여 간호교육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간호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론교육과 교내실습이 한 교과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사정 및 실습에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교육전략 개발에 기여하

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이 건강사정 및 실습수업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2.1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이 간호대 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1.2.2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이 간호대 학생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1.2.3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이 간호대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육방법 비교를 위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교육방법 효과를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를 근거[22]로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을 받은 시행군과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과 비교연구를 계획하였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에 위치한 S대학교 2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건강사정 및 실습 교과목 수업을 수강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지 작성에 동의하는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교과목 학습방법 연구로 연구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 할 수밖에 없어 연구의 참여인 설문작성에 동의하지 않아도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에 관련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도중 설문지 작성을 중단을 원하는 철회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서면동의서 회수방법은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퇴실 후 조교가 무기명 봉투에 넣어 회수하여 대상자들의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statistical power analysis 결과(t-test)를 적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검정력 .80, 효과크기 0.5

를 기준으로 양측검정 하였을 때[23] 각 군당 64명, 총 128명이 산출되었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학생은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96명,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97명으로 산출된 표본 수를 충족하였으며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96명은 대조군에,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97명은 시행군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진행 도중 2018년도 1학기 2명, 2019년도 1학기 1명이 휴학을 하여 총 3명이 탈락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조군인 2018년도 1학기 94명, 시행군인 2019년도 1학기 96명의 자료가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학습동기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Pintrich 등 [24]이 개발한 학습동기전략 검사지를 Park과 Sung[25]이 학습동기와 관련된 변인만으로 재구성한 후 타당도 검증을 한 학습동기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습동기 도구는 내적목표 4문항, 외적목표 4문항, 과제 인식 6문항, 학습신념의 통제 4문항, 자기효능감 8문항, 시험불안 4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과 Sung[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9였다

2.3.2 학습태도

학습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Leem과 Sung[26]의 연구에서 사용한 교과태도 검사 도구를 Park과 Sung[25]이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한 학습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습태도 검사 도구는 학습에 임하는 태도 및 자세 6문항, 해당 과목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신념 8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과 Sung[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는 .87이었다.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Kim과 Park[27]이 개발한 척도를 통해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도구는 과제난이도 선호도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 등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9였다.

2.4 연구절차

2.4.1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 적용: 시행군

G시 소재 간호학과의 2019년 2학년 1학기 건강사정 및 실습 교과목 수업을 수강신청 한 학생에게 수업 후 매주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업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는 첫 주와 중간, 기말고사를 제외한 12주간 성찰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성찰일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20,28] 사전에 구조화된 성찰 질문을 제시하였다. 구조화된 성찰일지는 '학습내용'과 '학습과정'으로 구분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내용관련 질문은 '오늘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더 공부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실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고 학습과정관련 질문은 '오늘 강의와 실습에서 나는 어떠한 활동을 하였나요?', '오늘 강의와 실습에서 내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나의 학습 태도는 어떠했나요?' 이다. 학생들은 수업 첫 주인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성찰일지를 의미 있게 작성하기 위해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수피드백은 선행연구[29]를 근거로 제공되었다. 첫 번째, 적절한 시기에 피드백을 준다. 시간이 오래 지나 피드백이 제공 된다면 학생들이 행동을 교정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후 성찰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교수는 학생들의 성찰일지에 피드백 내용을 작성하여 다음 수업 전에 피드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돌려주었다. 두 번째, 성찰일지에 기재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피드백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가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학생의 인상이 아닌 성찰일지를 근거로 내용의 정확성을 알려주고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간호,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세 번째, 비난, 비판하는 내용으로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태도 측면에서 학생의 개선점을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4.2 성찰일지 작성(교수피드백 미 적용): 대조군

대조군에게는 시행군과 동일한 수업이 진행되고 성찰일지를 작성하였으나 교수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았다.

2.5 자료수집: 사전, 사후조사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건강사정 및 실습 교과목에 수강신청 한 2학년 학생 중 연구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학습동기, 학습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3월 5일~ 6월 8일, 2019년 3월 4일~ 6월 7일이었다. 설문지 작성은 수업 첫 주 오리엔테이션과 마지막 수업 후(14주 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5분 이었다. 본 연구자가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호손효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호손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학번 등 개인식별 자료는 연구보조원이 부호화하여 코딩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지 내용으로 성적과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6 자료분석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은 기술 통계로 하였고, 시행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t-test, x² test를 이용하였다.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고 학습태도는 사전검사 결과가 동질하지 않아 사전점수를 공변량 처리하여 공분산분석(ANCOVA)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3.1.1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Table 1 과 같이 시행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시행군 22.55±7.42, 대조군 21.90±5.82세였으며 본 연구대상자는 총 190명으로 남학생은 27명(14.2%), 여학생은 163명(85.8%)으로 나타났다.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Variables	Categories	Exp. ¹⁾	Cont. ²⁾	X ² or t	p
		(n=96) n (%) or mean ±SD	(n=94) n (%) or mean± SD		
Age		22.55 ±7.42	21.90± 5.82	0.67	.504
Gender	Male	18 (18.8)	9 (9.6)	3.28	.096
	Female	78 (81.2)	85 (90.4)		
Club activities experience	Yes	39 (40.6)	44 (46.8)	0.73	.465
	No	57 (59.4)	50 (53.2)		
Volunteer experience	Yes	57 (59.4)	54 (57.4)	0.07	.883
	No	39 (40.6)	40 (42.6)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60 (62.5)	50 (53.2)	1.69	.240
	Moderate	36 (37.5)	44 (46.8)		

1) EXP. : Reflection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group
2) Cont. : Reflection journal without teaching feedback group

3.1.2 사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Table 2 와 같이 시행군과 대조군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습태도는 시행군,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두 집단이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3.19, p=.002).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n=190)

Variables	Exp. ¹⁾	Cont. ²⁾	t	p
	(n=96) mean ±SD	(n=94) mean ±SD		
Learning motivation	113.26 ±11.81	114.50 ±11.69	-0.73	.468
Learning attitude	45.47 ±6.04	48.43 ±6.69	-3.19	.002
Academic self-efficacy	88.21 ±13.45	85.78 ±12.06	1.30	.194

1) EXP. : Reflection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group
2) Cont. : Reflection journal without teaching feedback group

3.2 교수 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 효과 검증

3.2.1 학습동기

교수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를 작성한 시행군의 학

습동기 점수는 성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Table 3 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10, p=.037). 시행군에서 학습동기 점수는 성찰일지 작성 전 113.26점이었고 교수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 후 117.72점으로 증가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과제인식(t=2.04, p=.042)에서 시행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내적목표(t=1.82, p=.070), 외적목표(t=0.77, p=.439), 학습신념통제(t=0.48, p=.628), 자기효능감(t=1.90, p=.058), 시험불안(t=1.08, p=.278)은 시행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2.2 학습태도

학습태도 점수는 시행군과 대조군의 사전 값이 동질하지 않아 사전 값을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사전 값 차이 효과를 통제한 후 검증한 결과, 시행군과 대조군에 Table 3 와 같이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54, p=.034). 시행군에서 학습태도 점수는 성찰일지 작성 전 45.47점이었고 교수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 후 47.58점으로 증가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학습에 임하는 태도 및 자세(t=4.36, p=.038)에서 시행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과목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신념(t=2.58, p=.110)은 시행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2.3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를 작성한 시행군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성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대조

Table 3. Changes i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Self-Efficacy between Two Groups.
(n=190)

Variables	Groups	Pre test	Post test	Difference	t or F	p
		(n=96) mean ±SD	(n=94) mean ±SD			
Learning motivation	Exp. ¹⁾	113.26 ±11.81	117.72 ±11.72	4.46 ±10.54	2.10	.037
	Cont. ²⁾	114.50 ±11.69	115.49 ±15.44	0.98 ±12.12		
Learning attitude	Exp. ¹⁾	45.47 ±6.04	47.58 ±6.79	2.11 ±5.49	4.54	.034
	Cont. ²⁾	48.43 ±6.69	48.05 ±7.26	-0.37 ±5.62		
Academic self-efficacy	Exp. ¹⁾	88.21 ±13.47	86.97 ±13.94	-1.23 ±10.07	0.67	.504
	Cont. ²⁾	85.78 ±12.06	85.43 ±12.17	-0.36 ±8.64		

1) EXP.: Reflection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group
2) Cont.: Reflection journal without teaching feedback group

군에 비해 Table 3 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제난이도 선호도($t=-0.76, p=.448$), 자기조절 효능감($t=0.51, p=.610$), 자신감($t=-0.77, p=.439$)인 모든 하위영역에서 시행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교육전략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 2학년 교과목인 건강사정 및 실습에서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을 받은 시행군과 교수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에서 학습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하위영역 중 과제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들이 성찰일지 작성 후 제공되는 교수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학습동기의 나머지 5개 영역인 내, 외적 목표, 자기효능감, 학습신념통제 및 시험불안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교내 실습교과목에 교수 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를 작성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찾을 수 없어 선행연구 중 팀학습의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 효과 연구를[18] 본 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학습동기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선행연구[18]에서 팀학습 후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를 작성한 경우 학습동기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팀학습이라는 교수학습방법이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팀학습은 교수와 팀원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학습참여와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를 기대할 수 있어[30] 팀학습 후 성찰일지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교수 피드백이 제공된다면 학습동기 향상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내 실습교과목에 교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만으로도 학습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교수 피드백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강사정 및 실습 교과목에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을 받은 시행군과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에서 학습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하위영역 중 학습에 임하는 태도 및 자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방법과 학습태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달라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선행연구[17] 중 이공계 학생의 글쓰기 교과목에 교수의 피드백만 실행한 군 보다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 피드백을 받은 군의 경우 학습태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수업에 성찰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군과 교수 피드백이 제외된 성찰일지를 작성한 군 간 학습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1]. 이는 성찰일지가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를 이끌어내지만 성찰일지 작성에만 중점을 두기보다 교수의 개별적인 피드백까지 제공된다면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학습의 적극적인 태도가 해당 교과목의 가치와 신념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여 이를 위해 다른 교육전략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건강사정 및 실습 교과목에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을 받은 시행군과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 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 중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교과목인 기본간호학 실습에 성찰일지를 작성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상을 보인 결과가 있었다[32]. 선행연구에서는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종속변수만을 고려하여 비교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성찰일지 유형이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성찰일지가 적용되었지만 선행연구에서 협력적 성찰일지가 적용되었다. 대부분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교과목에는 팀별 활동이 있으므로 팀 구성원들 간의 토의를 거쳐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협력적 성찰일지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상승시켰다고 판단된다. 협력적 성찰일지는 타인과의 토의 및 토론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성공을 느끼고 이러한 반복적 경험이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33]. 따라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교과목에는 교수 피드백이 제공된 개인적 성찰일지 작성보다는 교수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팀 활동으로 작성되는 협력적 성찰일지가 시간 대비 효과적 인 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저학년인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강사정 및 실습 교과목에 교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을 적용하여 학습동기, 학습태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습동기, 학습태도에서 시행군과 대조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교과목에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을 적용한다면 학습동기, 학습태도 향상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이 주 목적이려면 교수 피드백 없이 팀 활동으로 작성되는 협력적 성찰일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 소재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학습전략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교수자 1인 대 45명이 넘는 학급별 학생 수 비율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따라서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가 피드백을 제공할 때 교수자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학습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셋째, 교과목 교수인 증대 제공자가 설문지 자료를 수집하여 호손효과와 실험자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자료수집 시 연구와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자료수집에 관여하기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S. Y. Chang, I. W. Park & C. W. Kee. (2010). An analysis of reflection level in terms of the reflection style and the grades in PBL (problem-based learning) of medical school: focused on critical reflection. *Journal of Education Technology*, 26(1), 145-184.
- [2] U. MR. (2010). The study of learner-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to the effect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on learning in e-portfolio,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7(1), 213-246.
- [3] D. A. Kolb.(2007). *The Kolb learning style inventory*. Boston: Hay Resources Direct Boston, MA
- [4] I. A. Kang & E. S. Jung. (2009). The Reexamination of Educational Implications of Reflective Journal: A University Class Cas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Methodology Studies*, 21(2), 93-117. DOI : 10.17927/tkjems.2009.21.2.93
- [5] M. Y. Chun, S. H. Yoo & K. H. Cha. (2018). Medical professionalism and self-reflection in medical education.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2), 78. DOI : 10.17496/kmer.2018.20.2.78
- [6] J. A. Moon. (2004). *A handbook of reflective and experiential learning*. London: RoutledgeFalmer.
- [7] J. A. Moon. (2006). *A handbook of reflective and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2nd, editor. Abingdon: RoutledgeFalmer.
- [8] K. Chretien, E. Goldman & C. Faselis. (2008). The reflective writing class blog: using technology to promote reflec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3(12), 2066-2070. DOI : 10.1007/s11606-008-0796-5
- [9] Y. J. Seo & E. J. Jeon. (2012). A study of peer feedback opinion validity by types in wri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44, 369-395. DOI : 10.20880/kler.2012..44.369
- [10] S. M. Cho & J. N. Kim. (2009). The Effects of feedback types and learner's cognitive style on learning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blended learning. *Korean Education Inquiry*, 27(2), 91-112.
- [11] M. H. Lee & T. Jung. (2008). Examination of the learning motivational process model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1), 77-99.
- [12] S. Y. Hwang & M. J. Kim. (2006). A comparison of problem-based learning and lecture-based learning in an adult health nursing course. *Nurse Education Today*, 26(4), 315-321. DOI : 10.1016/j.nedt.2005.11.002
- [13] S. I. Park & K. M. lee.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learning attitude, self-efficacy and self-development volition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3, 1-12.
- [14] I. Y. Ka. (2002).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Seoul: Ewha university.
- [15] S. P. Brown, S. Ganesan & G. Challagalla. (2001). Self-efficacy as a moderator of information-seeking effective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5), 1043. DOI : 10.1037/0021-9010.86.5.1043
- [16] S. Hekimoglu & E. Kittrell. (2010). Challenging students' beliefs about mathematics: The use of documentary to alter perceptions of efficacy. *Primus*, 20(4), 299-331. DOI : 10.1080/10511970802293956
- [17] H. K. Kim & W. Y. Choi. (2017). The effects on

- academic achievements of both recording reflective journals and receiving feedback in technical writing.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0(3), 42-49.
- [18] I. S. Park & M. J. Kim. (2012). Effect of reflective journaling in team learning on the learning motivation of learn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2(5), 849-859.
DOI : 10.13065/jksdh.2012.12.5.849
- [19] S. J. Kang, E. J. Kim & H. J. Shin. (2016). Convergence Study about Problem-based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Academic Self-efficacy,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2), 33-41.
DOI : 10.15207/JKCS.2016.7.2.033
- [20] M. Y. Jho. (2016). Effects of writing reflective journal on meta-cogn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aking a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urse applying blended 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4), 430-439.
DOI : 10.7739/jkafn.2016.23.4.430
- [21] J. Y. Kim & M. K. Lee. (2018). Effect of team-based learning using reflection journal on pregnancy nursing course for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4(4), 404-413.
DOI : 10.4069/kjwhn.2018.24.4.404
- [22] M. K. Lee, S. J. Chang & S. J. Jang. (2017). Effects of the flipped classroom approach on the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co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6(2), 196-203.
DOI : 10.12934/jkpmhn.2017.26.2.196
- [23] H. C. Kang, K. P. Yeon & S. T. Han. (2015). A review on the use of effect size in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5), 641-649.
DOI : 10.4040/jkan.2015.45.5.641
- [24] P. R. Pintrich, D. A. Smith, T. Garcia & W. J. McKeachie. (1993). Reli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3(3), 801-813.
DOI : 10.1177/0013164493053003024
- [25] K. S. Park & E. M. Sung. (2012). The influence of students' perception of instructional performances o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attitude,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a higher education context.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8(2), 289-315.
DOI : 10.17232/KSET.28.2.289
- [26] J. Leem & E. Sung.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visualization tendency, attitude on the subject, learning flow, and learning satisfaction through the IPTV based instruction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7(3), 423-446.
- [27] A. Y. Kim & I. Y. Park.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 95-123.
- [28] K. J. Cho & K. Y. Lim. (2015). Impact of peer learners' feedback (in reflection activity using SNS) on learner's academic self-efficacy, meta-cognition and learning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 Technology*, 31(3), 401-430.
- [29] A. R. Cho. (2013). Six ways to provide meaningful and effective feedback.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5(4), 343-344.
DOI : 10.3946/kjme.2013.25.4.343
- [30] D. S. An. (2007). *Team-based learning workshop data base*. Seoul: Korea University.
- [31] H. K. Kim & C. J. Kim.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 reflection journal upon self motivated-learners' study.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9(5), 65-71.
- [32] M. Y. Cho. (2017). Effects of the Type of Writing Reflective Journals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aking a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urs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5), 2825-2839.
DOI : 10.7739/jkafn.2016.23.4.430
- [33] H. J. Lee. (1999). *The Nature of the Changes in Reflective Thinking in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Engaged in Student Teaching Field Experience in Korea*. Ohio: Ohio State University.

김진영(Jin-Young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7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피부비만관리학(피부비만관리학석사)
- 2017년 8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서영대학교 간호

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모성간호학, 교수학습법
- E-Mail : wowjin80@seoyeong.ac.kr

김은정(Eun-Jung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11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전남대학교 보건학협동과정(보건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서영대학교 간호

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건강사정 및 실습
- E-Mail : kejshep@seoyeong.ac.kr